



# 한여름 자연 속 숙소냉장고

최성민 · 인겨레신문사 부장

10여년 전부터 한국에는 '자연휴양림' 붐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자연휴양림에 인위의 손질을 가해 문명의 때를 입혀 놓은 곳이 적지 않다. 통나무 집은 외국산 목재를 들여와 외국식으로 지은 것이어서 거기에서 자고 나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벽난로를 때고 잠을 자고 나면 몸이 쭈시고 감기에 걸리는 수도 있다. 좋은 옥계수가 있는데 또 웬 인공풀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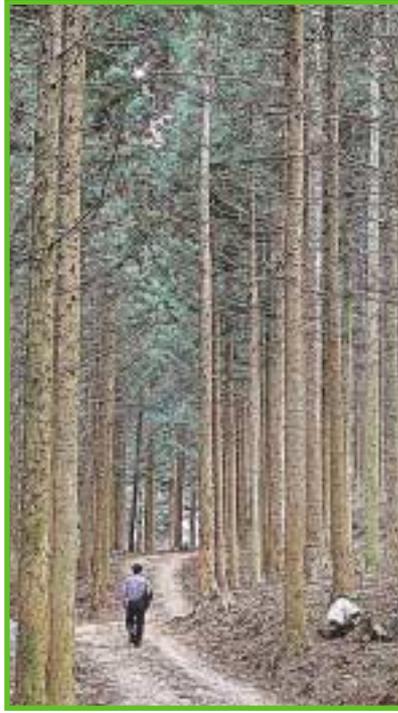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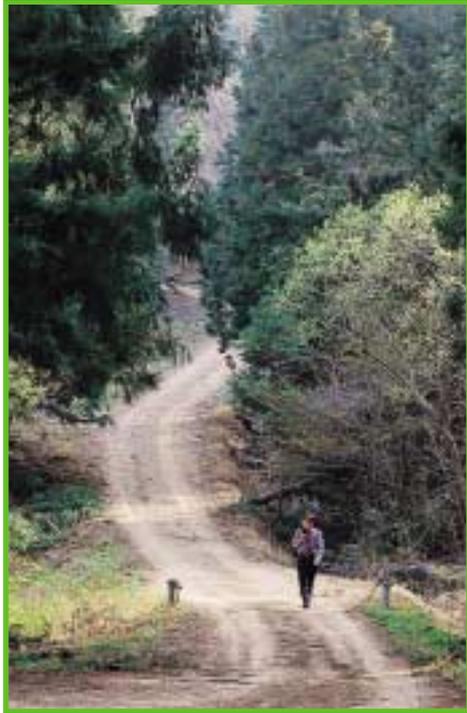
자연의 나라 뉴질랜드는 해외 관광객을 부르는 구호로 '100% pure Newzealand'를 내세우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집터잡기 기준 1순위는 '숲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다.

서울에선 강변아파트가 값이 나간다. 그런데 한강보다 더 자연다운 자연은 북한산, 남산, 관악산들이다. 강보다 더 생명을 함축하고 있는 산에 둘러싸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산이 보이는 아파트 찾기를 포기한 것은 이미 산들이 시멘트숲에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여행주제는 무엇인가. 조상이 물려준 금수강산에서 우리는 자연을 잇고 산다. 칙칙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흙탕물에 허우적대는 붕어들처럼 가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여행 주제는 세계인들의 그것처럼 '자연체험'이어야 한다.

녹음으로 생명력이 폭발하는 계절엔 숲에 들어가 볼 일이다. 프랑스 낭만주의 초기 작가이며 외교관이었던 프랑수아 르네 드 사토브리앙(1768~1848)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남는다."고 했단다. 이 말은, 숲(자연)이 문명을 낳고, 인간이 숲을 잘못 다루면 문명은 종말(사막)을 맞이한다는 경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



명이 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 난 강변이 모두 숲을 인구부양과 문명잉태의 모태로 했다. 우리의 팔만대장경을 낳은 것도 조선의 산에 무성했던 산벚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명 발생지는 숲을 파괴하여 경작지를 확대하면서 문명의 몰락(사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숲은 이밖에도 도시의 잿빛에 땀국 묻은 우리 심성을 씻어주는 등 현대인들의 자연회귀 본능을 채워준다. 1900년대 초 뉴욕의 한 병원에서서는 너무 많은 입원 환자들로 병실이 모자라 결핵환자들만을 따로 격리해 숲속에 야영 병실을 차렸는데, 그 치유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한다.

현재 이 땅엔 30여 곳의 관·민영 자연휴양림이

있다. 그 가운데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이 솔솔 외닿는 곳으로 전남 장성 축령산숲이 있다. 필자는 지난 99년말 백두산 관광취재차 갔던 북녘땅 백두고원(개마고원)의 광활하고 울창한 이깔나무숲에서 부러움과 자긍심에 빠진 적이 있는데, 축령산숲에서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있는 이 숲은 고 임종국(87년 작고)씨가 56년부터 나무를 심어 50년 된 것이다. 260ha에 두세 아름드리 삼나무와 편백들이 들어차 하늘을 덮고 있다. 숲속에서는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서늘하여 해충 등 곤충류가 살지 않는 밀림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영화 <태백산맥>도 찍었다. 편백향이 가득한 숲속으로는 6km의



향톳길이 나 있다. 경사가 없는 이 길을 따라 1시간 반 가량의 숲길 걷기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질 높은 삼림욕이자 생명만나기다. 사실 기자의 감기 기침도 그 길에서 푹 멎었다. 길 양쪽 끝에는 홍길동생가마을과 '내마음의 풍금'을 찍은 영화마을 금곡동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길은 옛날 장성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홍길동이 오르내리며 심신을 연마하고, 서자의 한을 풀고 집을 떠났던 길로도 전해오고 있다.

장성 여정에서 특히 놓칠 수 없는 것은 전통 야생차의 향기이다. 장성은 예로부터 서원이 많은 선비고장이어서 다향이 그윽했다. 지금도 장성 대밭이나 산계곡엔 야생 자생차밭이 많은데, 전통차지킴이 '남도야생채지기'(061-721-3752, 011-607-7025)에서는 이런 야생차잎만을 따서 전통방식대로 무쇠솥에서 손으로 튀어 <산절로>라는 차를 내고 있다. 이 <산절로>는 색깔이 연호박색 차향은 생잎의 상큼한 기운이 남아있는 '좋은 차'의 조건을 완벽하고 있다. ☞

### ■ 찾아가는 길 ■

서울에서 기차타고 가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장성역에 선다. 3시간 30분 걸린다.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로 장성 나들목으로 들어간다. 서울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타면 3시간 걸린다. 장성읍내에 숙박시설이 많다. 한식당 '장성골 명가'(061-394-9292)의 한우고기와 '초야식당'(061-393-0734)의 민물장어구이가 먹을 만하다.